

한국전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 메시지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국전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참전용사와 미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미합중국 전몰용사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는 공산전체주의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고 세계로 확산해 나가려는 기도를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자유세계가 공유해 온 가치와 신념을 끝내 지켜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또한 미국인들의 위대한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어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피로써 맺은 한·미 동맹은 그 후 50년 동안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 왔습니다. 저와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큰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거듭 확인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여러분의 우정과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숙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념식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고한 한·미 동맹과 양 국민간 우호협력의 영원한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